



예열 마친 고진영, 우승 정조준

내일 '플로리다 스윙'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 출전
김세영·박성현·이정은 6 등 15명 한국선수 혈투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 고진영(26)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총상금 150만 달러·우승상금 22만5000달러)에서 우승에 도전한다.

고진영은 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오칼라의 골든 오칼라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은 플로리다주에서 개최되는 다섯 개의 LPGA 투어 대회 중 하나이다. 투어에서는 이 시리즈를 '플로리다 스윙'이라고 부른다.

고진영은 지난주 막을 내린 게인브리지 LPGA에서 4위에 올랐다. 올해 들어 처음 나온 대회에서 여전한 실력을

을 뽐냈다.

예열을 마친 고진영은 올해 첫 우승을 바라보고 있다.

고진영은 게인브리지 LPGA를 마친 후 "그런이 어려워 퍼트에 고전했다. 단점을 보완해 목표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고진영과 함께 세계랭킹 2위 김세영(28), 박성현(28), 이정은(25), 전인지(27) 등 15명의 한국 선수들이 우승을 놓고 혈투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 '올해의 선수'에 오른 김세영은 2021년도 자신의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

김세영은 지난해 11월 펠리칸 위민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후 아직 정상

에 서지 못했다. 김세영은 올해 세계랭킹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골든 오칼라 골프클럽은 한국 선수들에게 기본 좋은 기억이 있는 장소다.

골든 오칼라 골프클럽은 LPGA 투어 대회를 세 번째 치르게 된다. 골든 오칼라의 첫 LPGA 투어 대회는 2015년에 개최된 코츠 골프 챔피언십이다. 최나연(34)은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듬해 같은 대회에서 장하나(29)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후 5년 만에 다시 LPGA 투어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전체 대상 선수는 제시카 코르다-벨리 코르다 자매이다.

제시카는 개막전인 다이아몬드 리조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동생 벨리는 게인브리지 LPGA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등 컨디션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고진영이 2월28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레이크 노나 GC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게인브리지 LPGA 최중라운드 5번 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고진영은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를 기록하며 4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프로야구 신세계 야구단 이름 이번주 공개된다

SK 와이번스 5일까지 사용

프로야구 SK 와이번스를 인수해 KBO리그에 뛰어들 신세계 야구단의 이름이 이번주 공개될 전망이다.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와이번스 인수 절차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지난달 23일 구단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고, 오는 5일에는 인수와 관련된 회계 과정이 마무리된다. 구단이 'SK 와이번스'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5일이 마지막이다.

이에 맞춰 신세계 야구단이 새 이름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달 27일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에 등장해 "야구단 이름은 이미 정해졌고, 다음 주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제 관심은 '팀명'에 쏠리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달 한국야구위원회(KBO) 신세계 일렉트로닉스 가입 신청을 했지만, 이는 '가칭'으로 공식 이름은 다시 정한다는 입장이었다.

정 부회장이 준 '힌트'로 여러 추리가 나오는 중이다. 정 부회장은 "후보로 웨일스, 팬더스, 마린스, 부스터스 등이 거론됐다"고 말했다. "인원하면 딱 떠오르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공향'을 중심으로 팀명을 정했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팬들이 추측하고 있는 이름은 '랜더스(Landers)'다. 착륙하다는 뜻과 인천국제공항, 인천상륙작전 등을 연관 지을 수 있다.

신세계그룹은 이미 랜더스의 상표권 출원도 마쳤다. 'ssglanders.com'의 도메인도 등록이 됐다.

높아지는 관심 속에 신세계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인수 마무리와 함께 팀명을 공개하는 게 좋긴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해지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랜더스'에 대해서는 "상표권 출원을 한 것은 맞지만, 등록해둔 다른 이름들도 있다. 랜더스는 여러 후보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부회장은 다음달 19일까지 유니폼과 엠블럼 등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상징색인 노란 색은 쓰지 않고, 신세계그룹의 빨간색은 살렸다고 말했다.

뉴시스

호날두, 12시즌 연속 리그 20골 이상 달성

세계적인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12시즌 연속으로 리그에서 20골 이상을 터뜨리는 꾸준함을 과시했다.

호날두는 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의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페치아와의 2020~2021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25라운드에서 2-0으로 앞선 후반 44분 승부에 쐐기를 박는 골을 터뜨리며 유벤투스의 3-0 승리에 일조했다.

리그 20호골을 기록한 호날두는 득점부분 선두를 굳건히 했다. 2위 로멜로 루카쿠(인터 밀란·18골)와의 격차를 2골로 벌렸다.

또 리그 기준으로 12시즌 연속으로 20골 이상을 기록했다.

호날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유니폼을 입은 2009~2010시즌 26골을 시작으로 이번 시즌까지 12시즌 연속으로 20골 이상을 넣게 됐다.

여자배구 막판 3경기, 정규리그 MVP 운명도 갈린다

김연경-러츠-이소영 유력
우승팀 최고의 별 탄생할 듯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가 막바지를 향해가면서 최고의 별을 뽑는 정규리그 MVP에도 서서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규리그 MVP는 기자단 투표로 결정된다. 투표는 정규리그 종료 직후 시작된 포스트시즌 시작 직전 막을 내린다. 글자 그대로 정규리그 성적이므로 최고의 별을 선정한다.

MVP의 전제 조건은 팀의 우승이다. 반드시 우승팀에서 나오라는 보장은 없지만, 포심 휘어잡기에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과거 사례들이 이를 증명한다. 앞선 16명의 여자부 정규리그 MVP 중 우승팀의 일원이 아닌 이는 프로월드컵 대역(당시 현대건설)이 유일하다. 단 한 차례만 예외가 허락됐을



뿐 나머지 MVP는 모두 우승팀에서 나왔다.

올해 정규리그 우승 경쟁은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이상 승점 53·18승9패)의 2파전으로 일찌감치 압축됐다. MVP 역시 두 선수의 소속팀에서



탄생할 확률이 높다.

GS칼텍스의 유력 후보는 외국인 선수 러츠와 토종 에이스 이소영이다.

한국 무대 2년차를 맞이한 러츠는 3일 현재 득점 3위(805점), 공격종합 2위(44.33%), 오픈 2위(42.47%),



득점 9위(405점), 공격종합 4위(41.15%), 오픈 9위(35.06%)로 러츠에는 못 미치지만 기록 또한 괜찮다.

부상을 달고 살던 예전과 달리 올해는 마지막까지 팀에 힘을 보태는 중이다. '소영 선배'라는 별명처럼 안 좋은 소식들로 가득했던 올 시즌 팀을 무탈하게 이끌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

흥국생명으로 눈을 돌리면 단연 김연경이 눈에 띈다. 득점 5위(595점·토종선수 1위), 공격종합 1위(46.43%), 오픈 1위(44.73%), 킷오픈 3위(48.30%)로 복귀 시즌을 화려하게 수놓는 중이다. 학교 폭력으로 이탈한 이재영·다영 쌍둥이 자매의 공백과 불화설 등 갖은 악재 속에서 묵묵히 제 몫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MVP 후보로 조금도 손색이 없다.

GS칼텍스가 우승하면 러츠와 이소영의 집안 경쟁이, 흥국생명이 정상에 오르면 김연경의 무혈입성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운명은 남은 세 경기 결과에 달렸다. 뉴시스

손흥민, 메시·호날두와 유럽 5대리그 월드클래스 27인 선정



잉글랜드 프로축구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토트넘)이 영국의 한 언론이 선정한 유럽 5대리그 월드클래스 27인에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영국 '기브미스포츠'가 3일(한국시간) 유럽 5대리그로 꼽히는 잉글랜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활약 중인 월드클래스 27명을 선정했다.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로 유일하게 포함됐다.

우선 EPL에선 손흥민과 팀 동료 해리 케인을 비롯해 총 10명이 선정됐

다. 이 매체는 손흥민에 대해 "케인의 믿을 수 있는 팀 동료로 2015년 8월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후, 월드클래스 지위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총 18골 15도움으로 최고 활약을 펼치고 있다. 종전 자신의 한 시즌 최다 공격포인트 기록을 갈아치웠고, 공격포인트를 기록할 때마다 새 역사를 쓰는 중이다.

둘 외에 리버풀의 버질 반 다이크, 모하마드 살라, 사디오 마네, 앤드류 로버트슨, 골키퍼 알리송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맨체스터 시티의 세르히오 아구에로, 케빈 더 브라운너가 EPL을 대표했다.

스페인 라리가에선 메시를 비롯해 골키퍼 테어 슈테겐(이상 바르셀로나), 카림 벤제마, 세르히오 라모스, 루카 모드리치(이상 레알 마드리드), 루이스 수아레스, 골키퍼 안 오블락(이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 선정됐다.

이밖에 호날두는 이탈리아 세리에A를 대표해 이름을 올렸고, 레반토프스키, 골키퍼 노이어(이상 바이에른 뮌헨)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월드클래스로 인정받았다.

최형우·터커 헛스윙 삼진 잡은 KIA 고졸 루키 '눈길'

장민기, 팀 중심타자 상대 당당한 투구 "70점 주교파"



"70점입니다". KIA 타이거즈 신인 좌완투수 장민기(19)가 루키 답지 않는 당당한 투구를 했다.

장민기는 2일 함평-기아 챔피언스 필드 2구장에서 두 번째 라이브피칭을 소화했다. 9명의 타자를 상대로 35개의 볼을 던졌다. 직구와 슬라이더를 중심으로 주무기인 포크도 구사하며 구위를 점검했다.

KIA 중심타자들인 최형우, 터커, 나지완을 상대로 삼진을 잡아내는 모습

도 보였다. 나지완은 볼을 선 채로 봤다. 특히 좌타자들인 터커와 최형우는 힘차게 스윙했으나 공을 맞지 못하는 장면도 있었다.

장민기는 "볼펜피칭과 달리 밀어넣지 않고 포수를 보고 가장 세계 던졌다. 캠프에서 제일 좋았다. 포크볼을 빼고는 다 좋았다. 직구와 슬라이더를 많이 던졌다. 70점을 주고 싶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타자와 상대하니 훨씬 재미있다. 타자가 서있으면 각을 잡고 던질

수 있다. 벽이 있다는 느낌이다. (나지완, 최형우, 터커 삼진에 대해서는) 나보다 포수 선배님이 미트집을 잘해서 그렇다며 웃었다.

속도에 말했다. "포크가 주무기인데 떨어뜨려다 보니 안 좋았다. 포크 그림이 약간 다르다. 체인지업 같이 떨어진다. 손가락 그림을 뜨는 것마다 다르다. 옴과 시절 조정훈(전 롯데) 수) 코치님에게 배웠다. 셋포지션에서도 빨리 때리지 못하고 밀어 던진 것도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민기는 2차 2번으로 낙점을 받은 좌완 유망주이다. 양현종의 공백을 메울 선발후보로 동기생 이의리와 경쟁을 하고 있다. 불골에 힘이 있고 제구와 변화구가 장점이다. 타자와 승부를 즐긴다. 추신수를 상대하면 "홀런을 맞고 싶다"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곧바로 "베스트 공으로 정면승부 하겠다"고 배짱도 보였다.

투구를 지켜본 정명원 코치는 "타자를 세워놓으니 더 좋은 볼을 던진다. 스피드(140km대 초반)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임팩트도 좋아졌다. 아직은 제구와 변화구가 완벽하게 다 들어야 한다. 몸 전체를 쓰지 못하고 상체와 팔 위주이다. 차분하게 기량을 키워면 선발타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